

석사학위 논문

한·일 상사뱀 설화의 비교 연구

카이미

2011년 2월 고전문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조현설 선생님

본고는 한국과 일본의 상사뱀 설화를 비교 분석하여 양국 설화에 나타난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고, 그러한 동이(同異)가 나타나게 된 이유를 문화적 배경을 통하여 해석함으로써 양국 설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상사뱀 설화란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뱀으로 변하여 생전에 사모하던 상대방을 찾아가 몸에 부착하는 이야기이다. 이와 유사한 설화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도죠사(道成寺) 전승, 또는 안친키요히메(安珍清姫)라는 명칭으로 전승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양국에서 전승되는 이러한 구전·문헌 자료를 두루 섭렵하고 검토하였다.

우선 양국 상사뱀 설화를 유형 분류하여 존재양상을 살펴보았다. 즉 상사주체의 성별에 따라 크게 남성형과 여성형으로 분류한 다음에 다시 결말양상에 따라 하위분류한 것이다. 그 결과 상사주체의 성별에 따라 결말에서 특징적 양상이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었다. 남성형의 경우 세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상사뱀이 상사대상을 죽이는 ‘복수형’, 상사뱀이 어떤 방법으로 퇴치하는 ‘퇴치형’, 그리고 상사뱀이 상대방 몸에 부착하기 전에 미리 예방당하는 ‘예방형’ 이 그것이다. 한국의 경우는 세 유형에 해당되는 설화가 모두 전승되고 있고, 상사주체가 일시적으로 변신한 뱀을 퇴치하는 ‘예방형’ 자료는 남성형 자료

에서만 발견되었다. 한편 일본의 경우는 남성형은 ‘복수형’ 과 ‘퇴치형’ 이 각 1편씩, 총 2편만이 전승되고 있으며, 두 편 모두 상사주체인 남성의 정체가 뱀으로 설정된 것이 특징적이다.

여성형의 경우 네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복수형’, ‘퇴치형’, ‘예방형’, 그리고 상대방 남성이 상사뱀을 위로함으로써 그 한을 풀어주는 ‘해원형’ 이다. 한국의 경우는 ‘복수형’, ‘퇴치형’, ‘해원형’ 이 전승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퇴치형’ 은 퇴치당하는 상사뱀이 일으키는 재앙의 유무에 따라 다시 ‘상사뱀의 죽음’ 과 ‘상사뱀의 죽음과 재앙’ 으로 나누었다. 후자의 경우는 여성형 자료에서만 발견되었으며, ‘해원형’ 과 마찬가지로 역사적인 남성 인물이 등장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한편 일본의 경우는 ‘복수형’, ‘퇴치형’, ‘예방형’ 이 전승되고 있다. 일본 상사뱀 설화는 거의 대부분 상사주체가 여성이며, 상사주체 여성의 정체에 따라 인간과 뱀으로 이분화 되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한국과 일본의 상사뱀 설화에 나타난 동이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양국 상사뱀 설화는 사랑을 성취하지 못한 사람이 죽어서 뱀으로 변신하고 생전에 사모하던 상대를 찾아가는 것이 공통점이다. 한국의 경우 뱀으로 변신한 상사주체가 상대방의 신체에 접촉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는데, 본고는 그러한 행동을 성적 욕구의 표출로 해석하였다. 사랑을 이루지 못하여 죽은 자의 영혼이 원귀로 형상화된 상사뱀은 생전에 품은 원한을 해소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상대방과의 신체 접촉을 통하여 원한을 풀려는 상사뱀의 변신원인은 성적 욕구의 불만에 있다고 하겠다. 일본의 경우도 상사주체 여성이 상대 남성에게 반하여 구애를 하지만, 거절당한 후 죽어서 뱀으로 변신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여성의 구애 행동은 상대방과의 신체적 결합을 요구하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으며, 변신동기 역시 성적 욕망에 기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생식본능에서 비롯된 성적 욕구는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인데 이러한 욕망이 사회적 제약에 의하여 좌절될 때 원한은 깊어진다. 이런 심각한 원한이 애욕을 상징하는 뱀으로 형상된 것이 바로 한·일 양국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상사뱀 설화인 것이다.

다음으로 양국 상사뱀 설화에서 상사뱀의 정체성과 퇴치방법에 있어서 각각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상사뱀의 정체성에 관해서는 먼저 변신주체의 성별에 있어 한국의 경우는 남녀 모두가 변신주체로 등장하는 데 비하여 일본의 경우는 변신주체가 대부분 여성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한국의 상사뱀 설화는 대부분 조선시대 신분사회가 배경이 되고 있고 상사주체는 신분차이 때문에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뱀으로 변신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사회적 장벽으로 인한 사랑의 좌절은 남녀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상사주체가 남성과 여성인 설화가 공히 생성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상사뱀 설화의 경우는 문헌설화에서 변신주체가 여성으로 나타났다. 불교계 문헌자료에서는 불교의 여성비하 인식이 반영된 결과 구도자를 방해하는 사악한 존재로 여성이 등장하였으며, 그러한 설화가 민간에 널리 전승되면서 여성이 애욕 때문에 뱀으로 변신하는 모티프가 정착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상사뱀의 정체성과 관련된 또 다른 특징으로는 일본 상사뱀 설화 가운데 변신주체의 정체를 원래 뱀으로 설정하고 있는 각편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각편은 일본에서 전승되는 이류교혼담과 유사한데, 그 이유로 설화의 전승과정에서 여성의 변신양상이 변모되어 여성과 뱀이 동일시된 결과라고 보았다.

퇴치방법에 있어서는 한국의 경우 역사적인 인물이 상사뱀을 퇴치하는 인물로 설정되는 반면에 일본의 경우는 법화경의 영험으로 상사뱀이 퇴치된다는 차이가 있었다. 한국 설화에서 상사뱀을 퇴치하는 자로 등장하는 역사적인 인물은 조선시대 사대부 문신과 무장의 두 유형으로 나누어졌다. 문신이 등장하는 설화에서는 고명한 학자와 그 제자가 등장한다. 이들의 상사뱀을 대하는 태도는 철저히 유교적 규범에 입각해 있었다. 그러나 고명한 학자인 스승은 상사뱀의 실체를 파악하여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 한을 풀어주려고 하는 반면, 제자는 그러한 스승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상사뱀을 해쳐서 재앙을 입게 된다. 또 무장이 등장하는 설화에서는 그들이 끝까지 상사뱀을 포용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나중에 상사뱀의 도움으로 전

공을 세우게 된다. 이와 같이 한국의 상사뱀 설화에서는 원한은 반드시 풀어야 한다는 민중의식이 작동하여 상사뱀 설화가 인물전설담과 결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의 경우는 상사뱀 설화가 불교계 문헌에 법화경 영험담으로 수록되어 있다. 이 영험담에서는 상사뱀으로 변신한 여성과 그녀에게 사로잡혀 역시 뱀이 된 남성이 법화경의 영험으로 구제된다. 이는 불교의 윤회전생관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